

## 금요 양성 2025년 1월 31일 소통 2부: 소셜미디어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

### 미국 국가 형제회 2022-2025년 우선 순위 과제: “성소, 소통, 관계”

#재속프란치스코회, #프란시스, #정의, #평화, #사랑

이 양성을 준비해 주신 국가 양성위원회 회장 Layna Maher, OFS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금요양성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을 살펴보고 가톨릭이며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우리의 게시와 관점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어떤 것을 올릴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하느님과 피조물에 대한 찬미를 어떤 식으로 올릴 것 같습니까?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과의 연대감을 어떻게 보여줄 것 같습니까? 부당함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지낼때는 친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쉬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분노와 단죄로 비난하는 것은 쉽게 정당화 할지도 모릅니다. 성 프란시스는 다시 한 번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FA:ED, vol. 1, 72 아씨시의 프란시스 초기 문헌 1권 72](#) 인준받지 않은 회칙 [10장: 형제들을 모욕하거나 헐뜯지 말고 서로 사랑할 것이다] <sup>1</sup>모든 형제들은 누군가를 중상하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sup>2</sup>오히려 주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마다 침묵을 지키도록 힘쓸 것입니다..

[FA:ED, vol. 1, 102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초기 문헌 1권 102](#) 인준받은 회칙 <sup>10</sup>또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나의 형제들에게 조언하고 권고하며 충고합니다. 세상을 두루 다닐 때, 형제들은 남과 다투거나 언쟁을 벌이거나 남을 판단하지 말고; <sup>11</sup>오히려 마땅히 모든 이에게 정직하게 말을 하면서 온유하고 평화롭고 단정하고 양순하고 겸허해야 합니다. <sup>2</sup>티모 2:14

프란시스 교황은 [57차 세계 사회 소통의 날 메시지 Message for the 57th World Day of Social Communications](#)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정중한 대화를 시작하려 하지 않고 처음부터 상대방을 불신하고 모욕하려는 경향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가르치는대로 부정적인 태도로 부터 벗어나 긍정적인 가능성을 포용하도록 합시다. “세계화된 오늘날의 세상에서 미디어는 서로를 더 가까이 느끼도록 해주어 인간 가족의 일치를 창조하며 이것은 다시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려는 진지한 노력과 연대감을 고무시켜 줍니다.

글을 올리거나 평을 하기 전에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아예 평이나 댓글을 달지말고 침묵의 기도로 응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할 수도 있지요. 선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영적 자원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피조물을 존중하는 방법과 프란치스칸의

평화의 정신을 배양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선교도 할 수 있고 복음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대한 사랑과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35**에서 -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재속프란치스코 회칙 14조**에서- 선의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 건설하도록 회원은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간은 스스로 더 완전한 인간이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크리스천 봉사 정신으로 자신의 책임을 힘껏 완수해야 한다.

### 북상하고 형제회와 토론하거나 저널에 의견쓰기

- + 나의 페이스북이나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는가?
- + 얼마만큼의 사랑과 평화를 내가 심고 있습니까?
- + 내가 올리는 글이나 논평이 좀 더 형제적인 세상을 건설하고 있는가?